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촌 하나멜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멜의 밭은 바벨론에게 점령된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밭을 사도 가꾸지도 못할 것이예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밭을 사람들 앞에서 사고, 매매 증서(밭을 샀다는 기록된 문서)를 동역자인 바룩에게 보냈어요. 왜 예레미야는 밭을 산 것일까요?

이것은 70년 포로생활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요. 또 예레미야는 밭을 삼으로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예레미야는 밭만 산 것이 아니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산 사람이예요.

시위대 뜰(2절) : 시위대는 왕궁을 지키는 부대예요. 그들의 뜰(궁터)에는 죄수들을 수감하는 감옥이 있었어요.

갈대아인(3절) :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해요

●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 내게 주시는 교훈, 행해야 할 것은 무엇 인가요?

● 묵상을 돕는 질문:

1.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꾸짖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5절)
2. 하나님은 땅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이제 곧 포로로 잡혀 갈 예레미야에게 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에게 밭이 희망의 증표였다면,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게 주신 희망의 증표는 무엇이 있나요? (6-15절)

● 기도: 말씀을 묵상 할 때에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절망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